

2025학년도 최종 합격 수기

이름		회소/뱀플러스 ID		핸드폰번호	
----	--	------------	--	-------	--

● 응시정보

응시과목	미술	응시지역	경기	응시횟수	1
입용시험 준비시기	교육대학원 졸업 직후	합격 준비기간	10개월	시험준비 병행여부	직장 병행 1개월 이후 올인

● 합격점수

1차 합격점수	교육학(교직논술) [19.33]점 / 전공(교육과정) [55]점
최종 합격점수	[157.050]점
가산점	[0]점 (가산점이 없을 경우 '0' 을 입력해 주세요.)

● 합격수기 작성

0. 인트로

- **마음가짐:** 돈 없어서 올해 붙어야 했음
- **공부장소:** 학교 도서관
- **공부시간:** 오전8시~오후10시+@ / 잠으면 좋지 않고 그냥 도서관 소파에서 15분 정도 잠
- **운동:** 1월~8월까지 일주일에 세네번 (헬스는 오래 했었음) / 9월부터 안감 ★**체력관리** 중요..★
- **약속:** 안만들고 안나감
- **휴식:** 7월? 까지는 일요일에 만나질 씬
- **비용:** 지원 안받음
- **방식:** 회독+인출+채점+스피드 회독 (1 set)

1. 시기별 교직논술/교육학 학습방법

- 1~2월: 인강 수강 (인강 비추: 딴짓 많이 하게 됨, 집중 못함)
- 2~3월: 학원 안나가고 전공 공부
- 3~5월: 현장 강의, 거의 다시 기본이론 재학습
- 5~7월: 현장 강의, 영역별 모고
- 7~11월: 현장 강의, 모고 (일요일이 개설되어서 선택함: 시간 절약 목적)
 - 교육학은 학원에 있을 때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딴 짓 않고 집중해서 강의를 들음
 - 쉬는 시간에는 폰질 보다는 항상 갖고 다니는 인출 공책 (연습장)에 오늘 배운 내용을 인출
 - 모고를 풀고 무조건 강사님께 질문해 내가 쓴게 맞는지 여쭙어보았음. 이 방법이 도움이 많이 됨
 - 현장 시험처럼 여러번 훑어보고, 모고라고 대중 작성하지 않음
 - 교육학 문제 자체가 논술형이기 때문에 암기를 바탕으로 한 글짓기가 중요한 듯 -> 2025학년도 올해 문제도 정말 처음 보는 '지문'이 많아 당황했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잘 버무려서 논리적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음
 - 매일 2시간씩 공부함 -> 지난 주에 했던 것 회독+인출+채점+스피드 회독 (1set)

2. 시기별 교육과정/전공 학습방법

시기	학원 커리	혼자 공부
1-2월	기본이론	한 달에 한 번 전체 회독
3-4월	심화이론	3-4주에 한 번 전체 회독
5-6월	기출, 필독서	2주에 한 번 전체 회독, 문제 출제 방식+답 작성법 익히기
7-8월	모고 첨삭	2주에 한 번 전체 회독+인출+채점+스피드 회독 (1set)
9-11월	모고 첨삭	1주-> 4일 -> 2일 (시험 직전 주) 에 한 번 전체 회독 *비법노트는 10월 중후반 부터 만들어서 암기
기본이론서, 심화서, 해당 영역 기출문제, 지난 주에 한 모고 => 1 set 꼼꼼하게 읽기, 백지 인출하기, 인출한거 채점하기, 못 외운거 대강 써놓기, 다시 읽기 => 1 set		

3. 2차 시험 학습방법(면접, 수업실연, 실기 등)

1) 교직적성 심층면접: 타고과와 3인 스터디. 사이다/면례 기반해 문제 만들어서 시간 재고 인출함

2) 교수학습지도안/수업실연: 미술교과 (학원에서 짜줌)와 3인 스터디. 기출만 실연 연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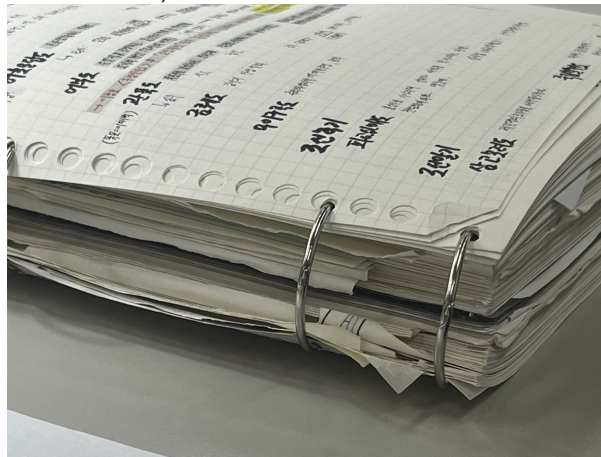
3) 전반적인 학습 방법이나 꿀팁:

- 면접은 시책 달달 외울 필요 절대 없음, 논리적으로+면접관의 머릿속에 내 답변이 명료하게 이미지화 될 수 있도록+나만의 답변+웃는 인상
- 실연에서 나눔용 화려한 장치는 유행 지남. 그냥 담백한 만능틀 정해놓고 문제에 적용하면서 연습하고, 현직 교사분이 채점하기 때문에 실제! 3월에 수업하고 있는 교사로서의 내 모습에 집중해서 연습하는게 중요함.

4. 자신만의 공부방법(어려운 문제 대비법, 슬럼프 극복, 체력관리 등 수험생활 전반의 TIP)

● 기본이론

- **획득:** 횡수를 세지 않고 기본이론서를 무지성 **반복**
- **단권화:** 기본이론서 에 대충. 도판을 함께 볼 수 있고, 기본서를 마치 사전처럼 쓸 수 있기 때문
- **서브노트:** 절대 제작하지 않았는데, 시간 부족 및 이해 없는 암기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
- **인출:** 채점하고, 틀린 거 그 자리에서 암기하는게 중요 (저는 이것을 7월 부터 제대로 했는데, 4월 쯤 부터 제대로 방법을 알고 했다면 좋았을듯 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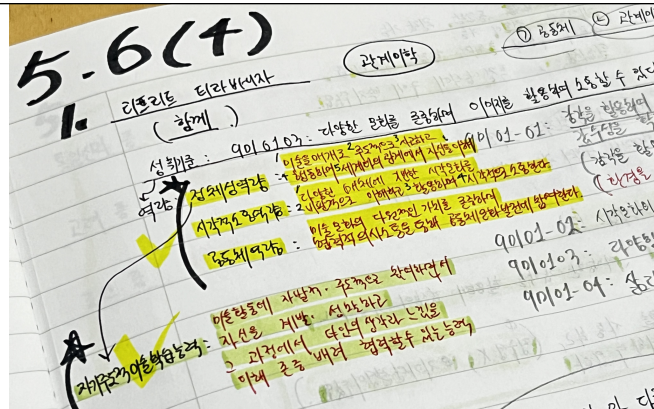
(대충 쑤서넣고 끼워넣은 단권화)

● 기출문제

-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닌, 기출 문제에 등장한 모든 개념과 단어를 마인드맵 식으로 인출
- 예) [조선시대 초상화 문제] -> 조선 회화 / 한국의 초상화 / 서양의 초상화 // 등장배경, 시대, 특징, 기법, 사용재료 / 정물화와 초상화 비교 / 산수화와 초상화 비교 등 관련된 모든 카테고리를 백지에 크게 써놓고, 인출을 뽁뽁하게 한 뒤 채점

● 모의고사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정확히 구분" 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 점수에 집착하지 않는게 중요하지만 점수가 '기대보다' 안올라서 불안했음. 모고 점수 잘 받았다고 합격하는게 아닌 걸 알지만만 불안할 수 밖에 없음. 그래서 그냥 불안을 즐기고 자극제로 삼아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음 (실제 점수 39점-> 42점-> 49점 -> 50점대로 10월까지 상승세)
- 강사님의 강조 문제는 작게 인쇄해서 단권화 (시간 너무 쓰지 말고 대충)
- 맞힌 문제 / 틀린 문제 구분하지 않기
- **A개념은 이런 식으로 출제 되는구나 + B개념을 풀때는 이렇게 중요하구나 체화하기**
- 예) [신교전주의vs낭만주의의 문제] -> 시대 비교, 공통점 차이점, 특징, 인상주의/입체파 까지 같이 비교해보기



- **슬럼프, 걱정 극복:** 스트레스나 걱정스러운 생각 자체를 안하고 무시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해봤자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공부’ 밖에 답이 안나옵니다.
- **체력 관리:** 저는 2018년 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왔고, 수험생 기간 중에도 운동은 종종 나갔습니다. 여름 이후로는 온갖 병이 다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운동을 해왔던 것이 있어서 그나마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수액, 비타민, 영양제

애플, 홍삼, 운동, 좋은 음식, 금주 등 최상의 공부를 위해 모든것을 다 투자하세요 !

5. 합격에 도움이 된 선생님과 강의/교재 활용 후기는?

- **장지연 교수님:** 공부 방법 지도, 상담을 정말 잘 해주심. 따끔하게 말씀하셔서 무서울때도 있지만, 정신이 번쩍 들
- **위상 교수님:** 방대한 표현 영역이지만, 이해가 잘 되는 강의라서 좋았음. 유머가 취향이라 그것까지 필기함함
- **윤진 교수님:** 교사, 채점관 및 평가위원, 출제위원 출신의 시각이 정말 고퀄리티.. 설명도 너무 잘해주심
- **미키 단어장:** 단어 하나하나 찾아볼 시간 없는데 5월?쯤 출시되어서 좋았음
- **위상 기본이론서:** 개인적 취향으로 교재 형식이 잘 맞았음 (가독성 없다고 욕하는 사람이 많지만...;;). 정말 칼같이 정리된 책과 노트, 자료를 선호한다면 안맞을수도?

6. 후배에게 전하는 메시지

초수지만 시험장에서 모든 시험을 끝내고 나서 든 생각은, '이 시험은 오래 공부해서 고득점이 나오는 시험이 아니구나' 였습니다. 학원에서 하는 모든 내용이 전공A,B의 기본적인 40%를 구성하는 것 같았고, 상식 10%, 내가 아는 것을 잘 버무려 써야하는 문제 10%, 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10% 같았습니다. 우직하고 묵묵하게 요령피우지 않고 공부하는 태도, 일희일비 하지 않는 마음가짐, 완벽하게 학습된 기본이론, 그리고 약간의 운이 따라주어야 하는 시험이더라구요.

그러니 유의미한 공부를 하되, 미래의 미술교사로서 진정성을 갖고 공부하고 체화하며 즐기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차에서 뒤집고 뒤집힌다는 경기도라도, 1차 점수가 합불을 크게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용기를 잃지 말고,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깨끗하게 공부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